

대 평양 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봉지 회중상부	Publisher	Korean Dongji Hp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루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 청 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 창 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43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 4월 1일 금요일	Issue No.	1743
		Date	May 16, 1969: Fri.

비에트남 학평계획

상방의 합의로 1년간에 상호철병

(회상은 5월 15일 밤, 공동) 니슨대통령은 14일 오후 10시로부터 약 30분간, 전미국을 향해, 레이디스 레메비온 협상을하고, "지금에 새로운 대도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소상방의 합의에 의한 기간 1년간에내의 상호철병을 기초로하는 비에트남 학평계획을 제안하였다.

동대통령은 그동에서 육군, 미국이나 기타의 비에트남 참전국의 군대와 북비에트남군 모든 대중들을 합의성립후 1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병시키고, 그 종료 후에 남에서 외국군대를 일정 지역에 집결시키면서 전우를 정치, 이어 남에게지의 군대를 상호철병시키는 것, 또 국제감시기구를 만들고, 철병, 유전, 날비에트남의 자유선거 등을 감시, 사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니슨대통령은 이북 비에트남군의 철병에 대해서 남비에트남만으로부터가 아니고, 간보지야, 타오스로부터의 철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대통령은, 북비에트남이 군대를 보내고 있지 안하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도와하지 않기로 하고, 북비에트남군이 거국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조라고 말하고 있다. 또 남비에트남의 정치 문제에서는, 일이나 협박을 스스지 않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의 정치참가를 요구하고, 자유선거에의한 어떠한 정부라도 받아드린다고 언명, 미국도 정치 문제의 도의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 동대통령은 남비에트남의 장래에 대해서는, 남비에트남 국민이 이망한다면, 중립에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니슨대통령은 이를 학평협정의 형식으로서, 이러한 협정, 비공식인 양태의 어느것이라도 조작하고, 해방전선의 10항목 학평안, 어떠한 제안에도 도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해방전선 10항목의 임시연합 정부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를 남비에트남 국민에 강요할 의사는 없다"라고 "강요"를 거부하고 있다. 또 백아관측은 (1) 파리 회의의 김전 (2) 남비에트남군의 강과 (3) 전두상장 여하로 철병한다라는 여래가지의 입장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니슨대통령은 협상을 중에서 일방적 철병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니슨연설을 새로운 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방전선이 10항무제안의 후에 남비에트남도시,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것 등에 강력히 경고하는 등, 강경하다고 보이는 면도 있다. 따라서 학평협정의 정론이 타개될지는 아직 모르나, 이연설에 기대한 미국인이 남북 합류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 백아관에서는, 미대통령의 제안은 전주, 남비에트남 민족 해방전선이 내노른 10항목 제획에의 회답이 아니고, 대통령 자신이 최근 쪽 집회를 가하여 오든 것이라고 한다.

(제 1면)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일방적 철회를 가까이 실시

(회상은 5월 15일밤, 공동) 니슨대통령은 14일의 뉴비에드님 글에 미군과 대치하여, 만은 전선을 선수하게 되어 이런 철병을 개시한다고 말하였다는데, 빼아관록을 그우, "미대통령은 철병에 회해서 남비에드님의 안전이 위험되지 않으, 또 그것이 남비에드님을 신뢰한 행동이라고 인정하는것이 명확하고 한단한때에는 미군병력의 사감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당초는 안정된 인수이면서 일방적 철회가 가까이 있을것을 시사하였다.

공산측 각국의 반향

(5월 15일밤 에이비 충합) 니슨대통령의 8강화 평제안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민족해방전선... 미국회 회의의 민족해방전선대로는 대통령의 현설지 후에 "이제 우리는 예방전선을 10강화제안에 대항하는 선언을 보인 것이다. 미국은 억전이 "상호침입"의 오해로 출판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난의 대로를 밟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부정을 아끼고 있다.

북비에드님... 북비에드님으로부터의 반향은 아직 엄마는, 아노아도부터의 충신사진은 "북비에드님은 니슨제안전체를 거부하지는 않을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포스코마... 국영통신사 라쓰는 "니슨대통령은 전쟁이 긴급한 난제에 아는것을 인정한것인데, 그의 현설의 대부분은 침략의 정당화라는 한정에 허락할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동남아세아 조약기구 해군 연습

(마닐라 5월 15일밤, 공동) 동남아세아조약기구가 6개국은 22일부터 2주일간 해군연습을 실시한다. 현승수역은 28일까지 동파나해, 6월 6일까지 대만해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미해군 당국 13일의 발표에 의하면, 미, 영,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미들린, 라이트부러 등 20개국, 참가함은 암경 60척이상이 참가하는 의례, 이연습에서 31일부터 타이에서 소규모의 미상 연습이 있을것이다.

국제수지 악화로 부른 대통령이 성명

(회상은 5월 16일밤, 공동) 니슨대통령은 15일, 인우레이션정책에 대해서 설명, 국제가 10% 증세 현장을 조금이 가격하도록 호소하는 동시에, 소비자, 경제계,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여 자제하도록 호소하였다. 설명은 니슨정권이 인우레이션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것을 다시 강조 (1) 인우레이션은 디달라의 일을 약하게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2) 따라서 우선 재정금융정책을 정상화시킬것, 즉 이 증세를 현장하고 재정의 대목을 날것이 선결이다 (3) 인우레이션 실리를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 노동조합, 경제계가 자기의 이익을 찾고, 정부의 정책에 이해를 표시하는것이 불가결하다. 그리고 세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성령은 통일 상무성이 발표한 금년 제1기 (1월부터 3월까지)의 국제수지의 적자가 17억 7천 8백만불을 19년간의 기록적 대목 적자라고 말한것에 관련: 그래서 인우레이션 억제에 국민의 협력과 자제를 요청한것이라고 본다.

소련의 금성 조호, 4개월 이상 비행후 도착

(호드밀뱅크 5월 16일 공동) 영국 호드밀뱅크 천문대의 대변인은 16일, 소련의 무인항공기 금성 5호가 동일아일 금성에 도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대변인에 의하면, 동항사기의 본체는 16일 오전 6시 30분에 금성의 대기권내에 들어, 과학기지를 실은 기가 약 10분후에, 1초간격으로 전화를 수신하기 시작하였다.

(제3편에 계속)

금성 착륙 도착 예정

금성 6호로 17일 아침, 거의 동시에에 금성에 도착 예정이며, 만일 성공한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두 대의 항공기가 금성에 대한 과학자료를 동시에 지상에 보내어온다. 호드밀뱅크 천문대는 이번 금성 탐사가의 관측에 관해서 소련당국과 협력, 소련은 호드밀뱅크 천문대에 관측자료를 제공하였다.

오기나와를 1973년까지 일본에 이관

(회상은 5월 15일밤, 공동) 미아원회고 위원회 회의원장은 14일 "오기나와의 반환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주요 군사기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협정하지만으면 합된다"라고 말하였다. 통위원장은 또 1973년까지 일본에 원정이 이관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도수상이 이번 가을 방미할 때에, 이 취지의 약속을 미국정부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휘-타스 최고재판사 드디어 퇴직

(회상은 5월 15일밤, 에이비) 현방 중권위원회 위원으로 복역 중의 금융업자 휴이스. 윌슨으로부터 2만불을 받고 있든 사건이 밤과, 주의의 미군을 맡고 의지하느냐, 판매를 맡느냐 주제를 끌고 있든 현방 최고재판소 에이브. 휘-타스판사는 15일, 사직을 발표하였다. 의지원은 14일, 오후에 니슨대통령에 보내어져, 니슨대통령은 즉시 이를 수락하였다. 휘-타스판사는 이전 윌슨의 고문변호사를하고, 윌슨재판으로부터 낸 예 2만불의 충신사례금을 받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니슨대통령에 의지 현파동시에 윌슨현방최고재판장 판세 보낸 서명서에 의하면, 1968년 8월, 휘-타스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윌슨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휘-타스판판사는 돈을 보낸 것은 윌슨이 기소된 이후의 일이었다고 한다. 휘-타스판판사는 서명서 중에서 "윌슨은 사건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 행정상, 사업상의 문제에도 간섭하지 관계인일은 없다. 나는 의지율하는데, 그것은, 최고재판소에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재판소의 중요한 기능의 시행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대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휘-타스판판사는 최고재판소에 3년 7개월 재임, 지난 존슨 전대통령에 의해 가까이 성년 의지하는 윌슨현방의 우임으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일정 승인시에 큰 분쟁이 일어나, 휘-타스판판사는 자신의 의 요청으로 지명을 취소되었다. 휘-타스판판의 선봉이 된 국회의에서는 이사직에 반죽을 도명, 이매뉴얼. 세리 아원사법 위원장은 "사직은 이 사건의 역사의 해결책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건을 더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공화당의 브더스. 매그레가 아원의 원은 14일 휘-타스 판매의 수속을 걸고 있는 철문회를 열 것을 요청하였는데, 사직의 보도 후에도 "미국인은 휘-타스판판사가 의지율을 결심한 경위를 다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 공화당 풀. 희팅아원의 원도 이를 지지하였다. 지구미대통령 보도관은 "니슨대통령은 15일 아침 빅체사법장관, 아티아인대통령 법률고문과 휘-타스 의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그러나 후임에 대한 발표가 언제 있을 것인가는 아직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장병제도 개혁을 부른 대통령이 전고

(회상은 5월 15일밤, 에이비) 니슨대통령은 13일, 미국 회에 서한을 보내고, 주차의 후원에 의한 신장병제도의 제정을 결고하였다. 신장병제도에 의한 제1적령자는 19세부터 26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개역안에서는 19세만으로 하고, 또 대학재학자는 계속 장병연기를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개역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이상적으로 전의용병제도를 이양한다"라고 입장을 다시 주장하였다.

(제4편에 계속)



(제3편으로부터 계속)

개혁안의 주요안점은 다음과 같다.

- (1) 제1혁명자는 19세도 한다. (2) 대학재적자에는 질병연기를 인정하고, 연기년한의 증호화
함께 제1혁명자로 본다. 재학자는 입대전에 1학년의 학업을 종료한것을 인정한다.
(3) 선발과정은 무작위추첨으로 한다. 니슨대통령은 성명 중, "질병에의한 개인의 생활의 방해
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도순하지않는한, 될수있는데도 최소한도로 정지하겠다. 그것은 나의 신념
이다"라고 말하였다. 대통령은 동일 의회에있어서 개혁안의 반향을 광화당수뇌에 봉진하였는데
그중의 하나인 워드하원원내총무는 "예측이 빨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맨스월드상원
원내총무는 "대통령제안은 질병제도의 개선인데, 여전히 불공정한 점이 많아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다.

한국 이민의 하와이 수입에 반대

하와이 노동조합 두 대표의 성명

관광업, 유통업의 발달, 그리고 바인애플 등조립기점도 아와이의 노동부족이 큰 문제인데, 한국의
바운은부수상은 수입된 외상은방문여행으로 기도에 오노루루에 들어, 노동문제의 해결에 비에드님
참전의 한국제대병을 이민으로서 아와이에 보내고싶다. 그리고 이를위해서 아와이.한국고교를
직시 시작하고싶다 타고 의미있는말을 공언하였는데, 이에대해서 아와이주최대의 노동조합의
수뇌자 2명은 바시제한에 절대반대를 표명하였다. 아이.엘.다블류.유의 척크.홀씨는 "비에드님
전쟁에 참가한 한국제대병의 수입들은 말할수없는일이다. 비에드님전에서 가장 잔악한 행동을
하고있는것은 그들 한국병이다. 이것은 비에드님전쟁에대해서 쓰고있는 모든 기록, 보고들이
다 징명하고잇는것이다. 비에드님전쟁에서 행하여지고잇는 고문, 야수적행위의 대부분은 이들
남한병의 행위이다. 만일 이들 남한인을 수입한다면, 우선 아와이에오기전에 총파 토를 두고
오도록 총고하라. "나는 별로 한국인에 반감을 가지고잇는것은 아니다. 나개인도 그러지만, 우리조합에는 인증차별감은 절대로없다. 남한에 우리 아와이에 필요한 유자격의 노동자가잇으면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둘.바인애플 회사에서는 최근 가주로부터 30명가량의 아외노동자를
수입하였는데, 이들에는 잡종다양의 인종이 포함되어있다. 노동자의 수입은 그려할것으로 하나의
인종에의하는것은 조치안라." 현지조직 노동자들은 태도를 명백히하고있다. 한편 조직 노동자의
두목인 아-사.랏트리츠씨 (호텔, 레스토랑 종업원조합, 아와이.팀스터 조합주사) 도 역시 강력
반발도, 남한제대병의 수입제안을 비난하고, "관광업에서도 노력부족의 문제보다도 적당한 속사를
종업원에 제공하는것이 위선 문제이다. 살만한 주택 도입은 아와이에 남한으로 신이민을 수입
하면, 도대체 주지사는 그들을 어데 수용할것인가. 스포월드병영에라도 너서, 군복을입히고,
매일 버스로 오노루루에 보내려는가." 타고 남한인의 수입에 찬성이라는 번스주지사의 태도를
비난하고있다. 번스주지사는 남한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으! 사 소식

본항 오기임여사는 거월분에 근거차로 마위도에 도착하여 모래동한 보지못한 라님의 가족들과
전에 친분이 든든하든 친지를 반기며 만나 약1개월간 기쁨을 같이하시고, 회로에 마위도에서
거점하시는 동지 회원들의 궁금까지 수합하여 동지 회중앙부로 전달하셨는데, 오기임여사의 성의
를 동지 회중앙부에서는 무한히 감사하고있다고한다.

주 말 재정 보다

년세금 마위 김영호 10.00 미수입 10.00 주보대금 마위 미수입 10.00
제입금 마위 김영호 2.00

